



산림조합 전북, 정읍시에 장학기금 500만원 전달

정읍시는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허석영)가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허석영 본부장과 시민장학재단 이사장인 이학수 시장이 참석했다.

허석영 본부장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기우며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 나이가 전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인재육성을 위해 큰 힘이 되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읍의 학생들이 다양한 미래와 꿈을 설계할 수 있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동충동 지사협, 가시바시에 착한가게 현판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가시바시(사업주 유영철)에 착한가게 13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동충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착한가게, 착한단체 및 착한기경(개인) 등 시장의 열매 캠페인 기부자들에 지속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소중하게 모인 성금은 동충동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김치남 동충동장은 “착한가게는 지역사회와의 희망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부자들이 참여하여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였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도협회 임실군지부, 애향장학금 500만원 기탁

(사)대한한도협회 임실군지부(지부장 김성두)가 10일 임실군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리며 장학금 500만원을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심민군수에게 전달했다.

대한한도협회 임실군지부는 40년 전에 설립해 현재 33여명의 회원들이 불우이웃돕기·장학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 기탁 외에도 지난 10월에 한돈 380kg(340만원 상당)을 한돈 농가들과 뜻을 모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시설에 전달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성두 지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 청소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민군수는 “임실 미래 발전의 소중한 인재를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해, 기탁해 주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마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은행, 김제시에 방한키트 80상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10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방한키트 80상자(3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키트 나눔 사업은 전북은행에서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돋우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뤄졌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나아가는 전북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연말을 맞아 소외되며 쉬운 이웃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북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은행의 따뜻한 정성이 잘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쌀 모금운동에 도민들이 동참해 주시길”

전북자치도,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쌀 모금 동참

전북특별자치도는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과 함께 결핵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크리스마스 쌀 모금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임환 대안결핵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크리스마스 쌀 증정식’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꾸준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결핵예방관리사업 주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쌀 모금에 많은 도민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직원들도 매년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기금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이며 2024년 크리스마스 쌀 모금사업은 대한결핵협회 주관으로 12월까지 총 30억 원 목표로 전북지역 목표액은 1억 4천만 원이다.

국민의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원, 대국민 결핵예방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현혈참여 최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10일 맑은 마음으로 청렴을 따뜻한 마음으로 현혈을(10월 28일) 캠페인을 진행한 공로로 전북혈액원으로부터 현혈참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정읍교육지원청은 관내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혈액 부족 문제 해소와 더불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라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혈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냈다.

최용훈 교육장을 “이번 표창은 교육지원청 구성원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표창을 수여하며 전북혈액원 강진석 원장은 “정읍교육지원청이 보여준 적극적인 현혈 캠페인은 큰 감동을 주었다”며, “타 지역 및 공공기관에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선도기업 지음소프트, 전북 취약계층 위해 성품 기탁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지음소프트(대표이사 남정훈)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누룽지 세트 2,000개(1,4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남정훈 지음소프트 대표이사, 노진선 전북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기탁된 성품은 전북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고령자 등 도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지음소프트는 2017년에 설립된 완주군 삼례읍을 소재 IT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기술 혁신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모범을 보여 왔다.

남정훈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사



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주신 지음소프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협력해 도민의 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남원 도통동 통장 49명, 동에 성금 500만원 기탁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에서 연말연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에는 도통동 통장협의회(회장 이거구) 49명의 통장들이 5백 민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매년 개인의 미움을 담아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기부이다. 통장협의회의 전통적인 나눔 활동 일환이다.

또한, 이날 통장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를 교육, 복지사각지대 없는 출출한 도통동과 더불어 취약계층 어르신의 독감 및 코로나 예방접종을 돌려하며 건강한 도통동 만들기에 한 발 더 앞서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백암초, 따뜻한 나눔 실천… 희망2025 캠페인 동참

정읍시 백암초등학교 전교생 32명이 겨울 계절학교 플리미켓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207만 7500원을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했다.

이번 플리미켓 행사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직접 물건을 제작하고 판매하며 나눔의 가치를 체험하는 뜻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9일 백암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이학수 시장 김길수 교장 이동남 교감 담당 교사 전교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백암초등학교는 1954년 개교한 농산촌 학교로, ‘지혜와 나눔으로 만들어가는 행복 교육 공동체’라는 교육 철학 아래 다양한 체험활동과 계절학교 플리미켓을 통해 꾸준히 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해왔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꿈나무인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군, 생활개선연합회 떡국떡 나눔 행사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회장 윤정순)는 10일 쌀 소비 촉진과 불우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정 나눔을 하고자 떡국 떡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진행을 위해 윤정순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무주군 농민의 집 조리 실습실에서 거래역 자르기와 떡국 떡 300상자(2kg/상자) 포장작업을 하였다.

이날 회원들은 직접 지역 저작장애인 시설인 하은의 집에 60박스, 6개 읍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 소외계층가정에 240박스(읍면별 40박스) 떡국 떡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윤정순 회장은 “축운 계절에 어르신들이 떡국을 드시고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나눠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재 양성 장학금 전달

(사)무주농공단지협의회(대표 이득주)가 지역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인구 유출을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10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사)무주농공단지협의회는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로 작년 12월에 구성(9개업체)했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시 인구소멸 대응 방안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등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등 폭넓게 논의 한 바 있다.

한편 같은날 농업회사법인 데이웰(주)과 래미F&B(대표 이득주)에서 무주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5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데이웰(주)과 래미F&B는 무주 제2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과일 가공 전문기업으로, 액상농축제품, 분말 탄산 머신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상장 수여식

김제소방서는 10일 월촌초등학교 교무실에서 2024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상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김제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조심 주제로 포스터 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월촌초등학교 6학년 1반 조현진 학생의 방심이 불러온 화재, 돌아킬 수 없는 피눈물이라는 작품이 2024년 김제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조현진 학생 외에도 겸산초 3학년 최주아, 김제초등 3학년 전나윤 어린이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월촌초등학교 6학년 나정원 어린이와 1학년 정태건 어린이도 장려상을 수상하여 각각 상장이 전달되었다.

오승주 김제소방서장은 “조현진 학생의 우수한 창의력과 표현력에 크게 감탄했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